

독도소식지 19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니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문제를 냅니다.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땅이 틀림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극우파들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적으로 돌려받으려 노력한다고 세계 각국에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독도를 지킬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우리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설명할 수 있고, 일본이 엉터리 주장을 하는 나쁜 나라인 것을 알릴 것이다. 독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인터넷 등으로 독도를 검색하여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공부 부족하여, 옛날부터 우리 땅이란 주장만 하니, 외국인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독도지킴이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고 물으니, “회원들 회비 받고 식사 하고 헤어진다.”고 한다. 또 어떤 독도 관련단체장은 힘을 모아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힘을 모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힘을 모아 독도가 우리 땅이라 주장하고 세계 각국에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일본이 독도를 더 큰 분쟁으로 만들어 국제재판에 이겨서 독도를 뺏으려 하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물으면, “재판에 안 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극우파가 자기네 땅이라며 독도상륙을 시도하면, 우리가 막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어, UN이 개입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평화적 방법이란 서로가 양보를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길이다.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3면에 있는 서명용지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리 준비해 두면, 재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독도연구, 독도마을 건설, 독도관광지 개발, 독도의용수비대 처우개선, 독도 주변 공동수역해제 등을 해야 한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 독도를 지키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한다는 사람은 서명운동을 해서 보내 주세요. 서명운동을 한 분은 누가 몇 명 서명 받았다는 기록을 영구적으로 독도박물관에 보관할 것입니다.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이 남습니다. *

후원금 주신 분

- | | | |
|-----|-------------------|---------|
| 손진현 | 부산시 동구 좌천동 | 5,000원 |
| 최근자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SK | 4,000원 |
| 최속임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2번째) | 20,000원 |
| 이상원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1985번 | 5,000원 |

성남시민은 성남투데이

독도사수연합 “독도 알림 베너전시물 김해공항 게시 거절 당해”

“독도 지킴 운동이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알리는 일” 한채훈 기자 news@sntoda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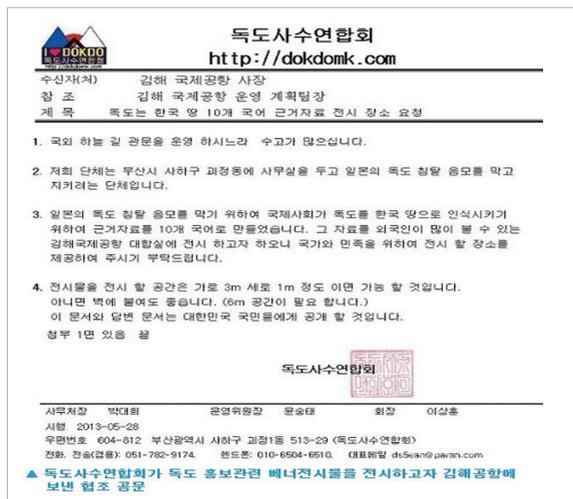


▲독도사수연합회가 직접 10개국 언어로 제작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기재된 베너전시물 @독도사수연합회

독도관련 대외국 및 대외국인 홍보용으로 제작된 베너 전시물이 우리나라 공항에서 전시를 거절당하고, 국가 행정기관을 비롯 국영기업체 등에서도 전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독도를 지키는 독도사수연합회(회장 이상훈) 본회와 경기도지회, 성남지부 등은 8일 합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독도관련 대외국, 외국인 홍보용 베너 제작물이 김해공항에서 전시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고, 정부나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체 등에서 조차 독도 지키기 운동에 대해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토론했다. 독도사수연합회는 "독도를 지키는 운동을 독도사수연합회는 지속해왔다"고 밝히고 "독도를 지키는 운동은 그렇다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알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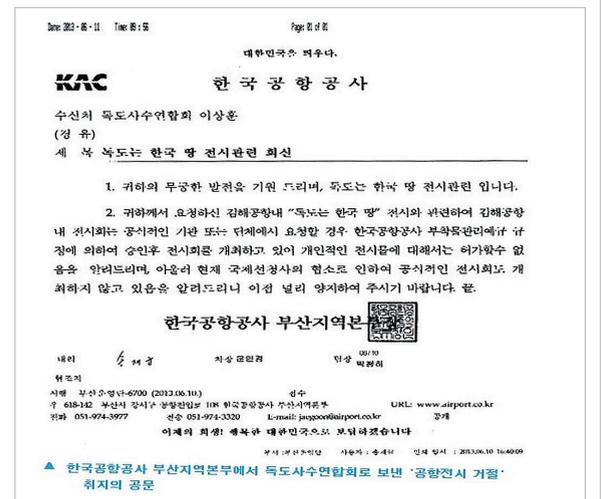
일"이라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독도사수연합회의 활동취지를 설명했다. 독도사수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독도사수연합회는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베너전시물을 제작했다"며 "그것도 무려 10개국 언어로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베너게시물 참고 : <http://dokdomart.byus.net/index4.htm>)이 단체는 "(독도사수연합은)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 한글 등 10개국 언어로 만들었으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베너전시물의 크기는 1개당 가로 60cm, 세로 160cm로(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김해국제공항에 전시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해 아직까지도 전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이 단체는 나아가 "공항에서만 허락해준다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에서 전시해서 외국인들에게 독도를 최대한 긴 시간동안 알리고 싶은(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며 정부와 공기업 등이 연합의 활동에 적극 호응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독도사수연합회는 호소문과 함께 김해공항으로 보낸 협조 공문과 김해공항으로부터 연합회로 발송



된 협조거절취지의 공문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는데, 김해공항측은 공문을 통해 '게시에 대한 결재과정상의 문제'와 '공항의 공간협소'를 이유로 전시물 게시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채훈 기자 / hchkp419@hanmail.net (저작권자 © 성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sntoday.com/sub_read.html?uid=25693#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부산22일 서울23일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2월22일 부산정발장군 동상에서 규탄대회



2월22일 일본영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2월22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본회기를 흔들며



2015. 2. 23
일본대사관 앞 집회

23일 일 대사관 맞은편 일본 독도 날 항의집회



23일 서희가수가 일본가사로 독도는 한국 땅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요구하며 외교장관 책임



독도장터시장, 홍보대사 서희, 인천지회장, 울산지회장



23일 독도마을 만들라고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



한국독도문학 작가협회 중앙회 감사패 전달받음

독도를 빼기만 안 되지 지켜야지 말은 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은 너무 적다. 월드컵 축구에 서울 광장에 100만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다. 그러나 독도운동에는 너무나 참석 인원이 적다. 너도나도 독도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기에 힘을 모우자. 영토를 못 지키면 또 식민지가 된다

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상임고문	학술고문	협력고문	고문	고문	고문
 최정현 원장 고문	 김영구 교수 홍보자문	 황성일 회장 자문	 이승명회장 홍보대사	 장현섭 회장	 곽현옥 약사 부회장
 송정숙 운영위원장	 임기병 교수 인천지회장	 문병준 교수 부산지회장	 서희 가수 울산지회장	 이상훈 경기지회장	 김영희 충북지회장
 나기찬 배우 성남지부장	 김상열 운영위원	 박대희 운영위원	 정종수 운영위원	 한채훈 운영위원	 조남용
 신한호	 백미경	 김석순	 권재진	 한동락	

독도사수연합회 운영위원 백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독도사수연합회 운영위원 백미경입니다. 독도는 논리와 이론으로 독도를 지키려 합니다. 독도를 일본이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고서 과거에 식민지를 살았던 역사를 알고서도 무심한 국민이 많습니다. 일본은 독도침략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지만 우리국민들은 일본이 다케시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우리국민들 규탄한다. 일본은 자폭하라. 등을 외치며 수일이 지나면 아무 일 없고 이론과 논리를 앞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독도사이트 여기 저기 차자 봐도 독도는 우리 땅 외치는 사이트와 외국에 홍보하는 사이트는 있지만 독도연구를 많이 하지는 사이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홈페이지를 차자 보니 이론과 논리로 독도를 지키자는 사이트로 보이기에 회원가입원서를 다운받아 메일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시간이 날 때 독도를 홍보하고 자료를 차보고 노력을 하니 이상훈회장이 운영위원을 하라 하시기에 자격은 없지만 노력은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싶어도 나라가 잘 못되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 축구나 야구는 많은 사람이 응원을 하지만 독도응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우리 모두 힘 모아 독도를 지킵시다. 독도주인 여러분 이론과 논리로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을 하여 우리 땅 지킵시다.

2011.10.15. 운영위원 백미경 자택에서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4편



21세기는 '상호 의존의 시대'인데, 또 동시에 「21세기의 국제사회」는 말할 수 없이 '투명한 사회'이기도 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독도문제에 관한 역사적 및 법적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양국간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계(긴장 상태)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ICJ에 무리하게 제소하려 할 때, 국제사회는 "일본은 인접국가인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로 ICJ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바람직하지 않는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도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 일본의 그것에 비교하여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및 법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쟁의 흐름이 하나의 위기(crisis)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국 측이 일본의 일방적인 ICJ에의 제소를 끝까지 무조건 무시하고만 있다면, "한국은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ICJ에 의한 사법적 절차에 의뢰하는 정당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분쟁의 흐름을 어느 단계에까지 나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당사국의 노력과 그 정치적 능력에 달려 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적 분쟁(조어도 문제와 독도 문제)은,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이른 바 샌프란시스코 체제(1951년 대일 강화조약 체제)에서 미국의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부당했었다고 하는 역사적 비판이 지배적으로 변한 지금, 기본적으로 일본 측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은 이러한 전반적인 대세만을 믿고 안도(安堵)할 입장은 아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약 17년간을 우리 정부는 "조용한 대응 방침"이라는 공허한 정책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왔다. 일본은 2008년 7월 14일 공포된 「신학습 지도요령」에 의거 2012년 3월부터

실제로 일본의 중고등 학생들에게 "독도(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일본의 영토인데 지금은 부당하게도 한국에 의해서 점거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고등 학생들이 일본 사회의 현실적 행동 주체로 나서는 것은 앞으로 불과 10년 이내의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부당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를 탈환하기 위해서 '실력적인 조치'를 감행하는 날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독도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개입해야 하는 『국제분쟁』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일관된 조용한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정책에 고무되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만들어 한국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게 하려는 일본의 중장기 전략은 이처럼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3. 한국 영토 정책의 재정립

가. 정책 재정립의 기본 요건

한국 정부 측의 법적 무지와 혼돈은 "시급히" 극복,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소위 "조용한 대응 정책"과 같이 법적인 무지(無知)와 이론상의 혼돈(混沌)들에 빠져서 일본측을 고무(鼓舞)하고, 일본 측으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무리하고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에 거리낌 없이 몰입하도록 유도(誘導)하고 있는 현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영토 정책의 재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고위 정책 담당자들의 법적 무지와 혼돈을 극복, 개선하는 길은 이들을 국제법과 역사 부문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춘 인사들로 전면 교체하거나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소양교육을 진급과 보임의 필수적 전제로 실시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독도사수대 에서 전부 불수 있음)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독도주인은 주인이다. 월드컵 축구 때 서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다. 그런데 독도는 관심이 없다. 독도행사에는 1천명도 잘 모이지 않는다. 독도를 뺏기면 안 되지 할 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 독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 1만 명중 한명 있을까? 독도 지키는 운동에 별 도움을 못 준다. 할 줄 몰라서 못 한다는 사람에게 서명운동 하라 하면 못 한다. 회원가입해서 월 회비 1000원을 내라 해도 못한다. 독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못한다. 독도지킴이라 자처하는 분들 중에도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 별로 없다. 당신은 독도 주인이다. 독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은 무얼 하였느냐? 아무것도 없다. 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o 요? x 요? 독도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독도 운동에 참여 하세요. 회원 가입부터 하세요. <편집자>

아래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제재판을 안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독도를 관광지 만들어 세계 각국에 한국의 관광지로 홍보하면 더욱 유리 해진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기며 독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 할 때 표를 의식해서 여론 따라 정책을 바꿀 것이다. 서명 많이 하면 여론이 된다. 아래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내주세요. <독도사수연합회>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 · 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oinkorea.cafe>
 보낼곳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77-16)
 독도사수연합회 E-mail :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독도 이상훈

독도홍보 방해하는 정부관리



위 현수막을 부산 APEC에서 외국정상과 관료들에게 홍보를 하려는데 경찰이 못하게 빼앗아갔다.



일본 눈치를 봐서 되겠는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기(單旗) 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독도' 표기 제의를 우리측이 두 차례 모두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회담에서 북측은 '세계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 표기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한반도와 제주도만 표기하자며 거부했다는 것. 2차 회담에서 북측은 '흰색바탕에 독도 표기된 하늘색 한반도 표기를 제안'하며 독도 표기 의사를 고수했는데, 남측은 '독도표기문제는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뉴스에서 발췌>

또 독도사수연합회가 김해국제공항에 독도한국 땅 자료를 10개 국어로 전시를 하려는 것을 공항이 협소해서 안 된다기에 벽에 붙이도록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 했다.



외교부 졸렬한 변명, 기세 등등한 일본

윤병세 외교부장관 "안전관리, 환경관리, 문화재경관 등을 감안해 입찰공고 취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독도는 일본 영토...공시 중단은 한국이 일본 주장 받아들인 것"

독도소식지 19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는 일본땅...전범 없다" 日 지도부 망언 릴레이 2015-02-13 08:30

[앵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전범의 명예가 회복돼 일본에는 더 이상 전범이 없다", 이런 망언이 아베 정권 수뇌부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복심으로 불리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가 망언 릴레이를 시작한 듯 포문을 열었습니다."국회 결의로 전범의 명예가 회복된 만큼 전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전범이 합사된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며 정당화했습니다.

[인터뷰: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

"70주년 간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얼마나 원조를 해왔나 그걸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외무장관은 TV로 중계되는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보다 더 일본인 특유의 꼼꼼함과 집요함으로 물고 늘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인터뷰: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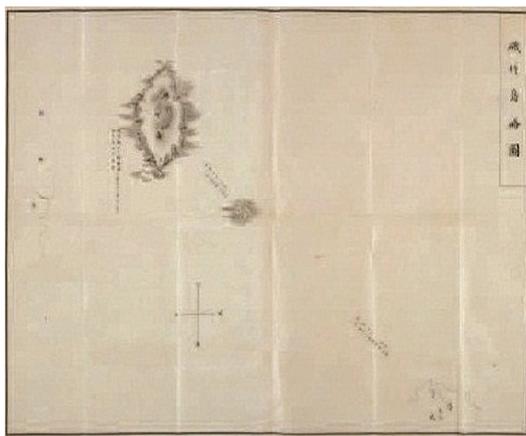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는 계속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끈기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시정 연설에서 북한과 '대화와 압력'이라는 두 잣대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기존 표현만 되풀이 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를 말할 때 상투어구처럼 사용하던 "기본적인 가치관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도 이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 아니란 대표적 근거가 태정관 문서이다.

대표적으로 1877년 메이지시대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에도막부와 조선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을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하였습니다. 『태정관지령』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의할 때 첨부하였던 지도인 『기죽도 약도(기죽島略圖, 기죽도는 울릉도의 옛 일본 명칭)』에 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점 등에서 위에서 언급된 '죽도 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을 명백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		
전화 (주택)	(직장)	(휴대폰)	
주소 (주택)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직장)		
직업(명)	소속단체 :		
E-mail			
참고로 기록합니다.			
년납 ()	월납 ()	회비 납부	자동 : 이체() 수시납 : 현금()
자원봉사 =년 회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독도사수연합회장 귀하

참고사항: 회비는 월1,000원 이상으로 자동 이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원은1만원 이상)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

우편번호: 607-80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전화: 051-782-9174, 독도 이상훈 손전화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E-mail : ds5ean@naver.com